

광주은행 “특별시 금고, 지방은행이 맡아야”



지역자금 재투자·경제 선순환 등 당위성 호소 청년인재 양성·문화스포츠 지원 등 역할 강조

광주은행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금고 선정을 앞두고 지역자금 선순환 등 지방은행의 금고 운영 당위성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광주은행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은행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지역 금융 생태계 유지에 통합특별시 금고 운영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시중은행은 단순히 규모의 경제나 자금력을 앞세운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전남광주의 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지역 생존을 위한 거대 경제 공동체의 탄생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통합특별시의 자금을 관리할 금고지 선정은 지역의 운명에도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은행은 △지역 자금의 선순환을 지키는 핵심 기반 △지역 인재의 최대 산실이자 청년들의 삶의 터전 △지역의 정



제성을 지탱하는 문화와 스포츠의 든든한 후원자 △지방은행 부재는 지역 금융의 공동화 초래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통합특별시 첫 금고 운영 기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지역 인재를 키우고 지역민의 자부심인 문화와 스포츠를 지키며, 위기 때 끝까지 곁을 지킬 지방은행이 금고를 운영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사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금고는 단순히 자금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의 자금을 지역으로 재투자하는 엔진이 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광주은행은 지역 인재 양성, 문화·스포츠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지역과 함께 온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22일 금고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제한경쟁으로 제안을 제출한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을 상대로 평가를 거쳐 제1금고(일반회

계), 제2금고(특별회계)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이번 금고 선정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맡을 금융기관을 뽑는 것으로, 내년 이후 통합시 금고 운영 기관은 올 하반기 공개경쟁을 통해 다시 찾는다.

2026년 기준 광주시 예산은 8조1000억원(일반회계 6조2000억원·특별회계 1조9000억원), 전남도 예산은 12조7000억원(일반회계 10조4000억원·특별회계 2조3000억원) 등 총 20조8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4년간 5조원씩 지원되는 특별시 예산이 추가되면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수도권 규제 강화에 지역 주택사업경기 ‘반동’

광주 52.9→76.4... 지방 광역시 20.0p 상승 다주택·PF 경색·원자재 부담에 수도권 약화

광주·전남지역 주택사업경기 전망이 여전히 기준선을 밑도는 가운데 광주 지수는 반등했지만 전남은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주택경기)는 광주 52.9, 전남 40.0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76.4로 전월보다 23.5p 상승했다. 전남도 62.5로 전월(60.0) 대비 2.5p 올랐지만 회복 폭은 제한적이었다.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내다보는 업계 비율이 더 높음을 뜻한다.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뜻한다.

광주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울산·대전에 이어 세번째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지난달 52.9까지 떨어졌던 지수가 한 달 만에 70선 중반까지 회복된 것이다. 다만 여전히 기준선에는 크게 못 미쳐 지역 주택시장 회복세가 본격화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반면 전남은 전국 시도 가운데 제주(56.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전망치를 기록했다. 상승 폭도 2.5p에 그쳐 전국 평균 상승 폭(13.9p)을 크게 밑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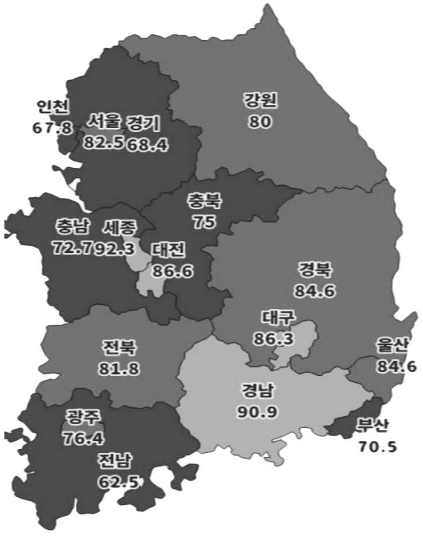
주요 지역별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 상승 배경으로 수도권 대출·세대 부담 확대에 따른 지방 비규제지역 관심 증가를 꼽았다.

전국 평균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3.9p 상승한 77.6으로 조사됐다. 수도권(72.9)은 5.3p 내려 전망이 악화했다. 경기 68.4(8.5p ↓), 서울 82.5(5.3p ↓), 인천 67.8(2.2p ↓) 순으로 하락했다.

수도권 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진 데다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유예 종료와 비거주 주택과 과세 강화 논의로 시장 관망세가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원자재 가격 불안이 건설 원가 부담을 높여면서 사업자 전망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5월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



반면 비수도권(78.6)은 18.0p 올라 전망이 개선됐다. 광역시(82.8) 20.0p, 도 지역(75.4) 16.3p 상승 전망됐다. 광역시는 울산(84.6, 25.8p ↑), 대전(86.6, 25.5p ↑), 광주(76.4, 23.5p ↑), 대구(86.3, 18.2p ↑), 세종(92.3, 17.3p ↑) 순으로 상승했다. 도 지역은 충북(75.0, 29.6p ↑), 경남(90.9, 29.4p ↑), 강원(80.0, 21.7p ↑),

전북(81.8, 20.3p ↑), 경북(84.6, 18.0p ↑) 순으로 전망이 개선됐다.

비수도권 지역 중 울산·경남 등 부울경 지역은 조선·자동차 산업 호조와 거래량 증가가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전월세 지수 하락 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 폭이 크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상승은 지방 주택시장 회복 기대와 함께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금리 상승과 PF 대출 경색, 미분양 적체 등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원자재 가격 불안이 건설 원가 부담을 키우며 사업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6.9p 상승한 73.0으로 전망됐으며, 자체수급지수는 12.5p 하락한 67.1로 집계됐다. 주안연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 특례 연장 등의 영향으로 자금조달 부담은 일부 완화됐지만, 자체 가격과 공사비 부담 우려는 오히려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업재용 기자 djawody0316@

포스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

올해 20억원 출연... 중소기업 제조 혁신 뒷받침

포스코는 국내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중소기업부와 함께 20일부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DX)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9년부터 누적 120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현재까지 632건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선 ‘현장 맞춤형 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기술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스코 사내 전문부서 ‘동반성장지원단’이 스마트공장 도입 계획 수립부터 시스템 구축, 이후 현장 문화 정착까지 밀착 지원한다.

포스코는 올해 20억원을 출연해 중소기업 지원을 이어 나간다. 올해 범국가적 AX(AI전환) 흐름에 맞춰 ‘AI트랙’을 새로 도입한다.

‘AI트랙’은 기존 스마트공장 구축을 넘어 AI기술을 현장에 접목하는 고도화 단

계로 스마트공장 구축의 기초부터 AI 적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기업에 최적화된 지원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이와 함께 중소·중견 철강거래사를 위한 금융 지원책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의 저리대출펀드와 철강ESG 상생펀드에 더해 올해 1월부터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과 함께 4000억원 규모의 ‘철강 공급망 안전화 기금’을 추가 운영해 총 1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생태계를 조성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박부품 제조업체 대천은 ICT 연계형 참고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제품 출하시간을 23% 줄이고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시켰다.

포스코 관계자는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철강 거래사 대상의 금융 지원 등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해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자 추가 모집

내달 4일까지... 지역특화기술 등 150명

전남도는 대학생과 청년을 중심으로 지역 벤처창업 기반을 다지고, 미래 첨단분야 우수 아이디어 보유자의 창업 촉진을 위해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제2기 지원자(기업)를 다음달 4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1차 모집 기간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예비 창업자들의 요청과 일정상 지원이 어려웠던 대학생·청년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던 데 따른 것이다.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창업 저변을 더욱 넓히는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선발된 입교생에게는 최대 2400만원(매월 100만원·최대 2년)의 창업기술 사업화비를 지원한다. 기업 맞춤형 1대 1 멘토링과 경영·회계·법률·투자유치 등 분야별 전문가 코칭 프로그램도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16개 대학·출연기관 등의 창업·보육 공간을 중심으로 기술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제품 제작,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IP) 인증,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자격은 예비창업자나 5년 이내 창업 기업인(2021년 1월 1일 이후 창업) 중 18세부터 45세 이하 청년(1981년부터 2008년 출생

자) 이며 전남도 거주자, 전업 예정자, 타 시도 거주자 모두 지원 가능하다. 다만 예비창업자는 16개 대학·출연기관 창업 보육센터 창업시설에 입주하고, 사업자(법인) 주소를 해당 창업시설에 1년 이내 등록해야 한다.

전남도 거주자와 전업 예정자, 도내 대학의 학생(석·박사 포함)은 선발 평가 시 우대 사항이 적용된다. 선발 규모는 총 150명(기업)으로 창업 분야별로 우주항공·바이오·AI·메이커·에너지 등 지역 특화기술 100명, 농수산물 30명, 문화·관광 분야 20명 등 미래 첨단분야 기술창업 중심으로 선발한다.

신청은 온라인(https://inchangup.ezweel.com) 회원가입 후 소정의 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총 11종으로, 공모일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만 유효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남도 벤처창업 종합안내창구(1533-3330), 16개 보육기관 등에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는 다음달 말까지 서류·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150명을 선발하고, 7월부터 창업 네트워킹, 전문가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44.38p(3.25%) 내린 7271.66에 거래를 마쳤다.

‘8000피’ 거센 후폭풍...코스피 3% 급락

외국인 6조 달러 개인 5조 받아...삼전·하이닉스 동반 약세

직전 거래일에서 V자 반동으로 강보합 마감한 코스피가 19일 7200선에서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244.38p(3.25%) 내린 7271.66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6일 ‘7000피’ 달성 이후 증가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수는 90.38p(1.20%) 내린 7425.66으로 출발, 한때 4.93% 내린 7141.91까지 밀리며 7100선까지 위협받기도 했다.

코스피 장중 최고와 최저 변동폭은 304.66p로, 지난 15일 장중 ‘8000피’를 찍고 급락한 이후 3거래일 연속 변동성

장세가 이어졌다.

외국인 6조2062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지난 7일부터 이어져온 9거래일 연속 순매도중 이날 두번째로 규모가 컸다. 기관의 순매수액도 5276억원으로 축소된 가운데, 개인이 5조6298억원 어치 순매수하며 하단을 지지했다.

총과업을 예고한 노조와 협상 중인 삼성전자의 주가는 한때 5%까지 내렸다가 장 마감 직전 낙폭을 줄이며 1.96% 내린 27만55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5.16% 내린 174만500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업재용 기자 djawody0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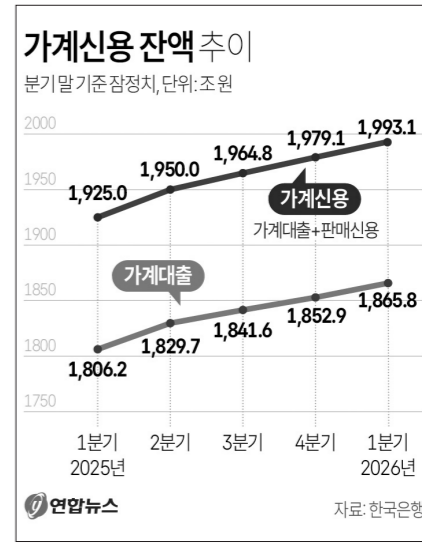
은행 막히자 비은행으로...가계빚 2000조 눈앞

1분기 14조 증가 ‘역대 최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중심 증권사 신용공여 확대 한몫

올해 1분기 가계신용이 14조원 증가하면서 2000조원에 근접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은행권 대출은 주춤했지만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관련 대출을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구입), 빚투(대출로 투자)가 늘어나면서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끌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1979조1000억원)보다 14조원 늘어나며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2024년 2분기 이후 8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1분기 증가폭은 작년 4분기(+14조3000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면 가계대출만 보면, 1분기 말 잔액이 1865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2조9000억원 늘었다. 증가폭도 전 분기(+11조3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포함



한 주택관련대출(1178조6000억원)이 8조1000억원,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687조2000억원)이 4조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창구별로는 예금은행 가계대출(1009조6000억원)이 2000억원 감소하며 2023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처음 줄었다. 예금은행 주택관련대출은 전 분기보다 3000억원 늘었으나 기타대출이 6000억원 줄었다.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에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325조원)은 석 달 사이 8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비은행에금취급기관의 주택관련대출이 10조6000억원 급증한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조5000억원 줄었다.
업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